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진안지역 사례*

진명숙** · 박성정***

초 록

최근 귀농·귀촌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 귀농·귀촌여성의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정책요구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안지역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귀농·귀촌여성들의 귀농·귀촌 동기, 정체성, 자녀교육, 경제활동, 마을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여성들의 농촌생활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귀농·귀촌 여성들의 농촌생활 만족도와 어려움, 그리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농촌 발전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여성들은 귀농·귀촌의 동기를 자녀의 교육환경,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 생태와 자연에 대한 관심, 시골생활에 대한 동경, 가족의 행복, 좀 더 나은 삶 등으로 답하고, 생활 방식과 가치의 전환을 농촌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신들을 '귀농·귀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은 농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또 농업 외의 분야에서 귀농·귀촌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마을 적응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갈등의 요소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농촌의 문화나 정서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귀농·귀촌은 '가구' 단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각자 주체적인 위치로 놓고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처하는 상황과 어려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또 귀농·귀촌이 농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여성들이 자신이 지닌 역량과 재능을 농촌 사회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농촌사회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귀농·귀촌, 귀농·귀촌여성, 농촌여성

* 본 논문은 박성정 외(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제1저자,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 sljin@hanmail.net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jpark@kwidmail.re.kr

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귀농·귀촌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도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1)의 귀농·귀촌 실태조사¹⁾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 수는 '05년도에 1,240호였으나 '10년 4천호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11년에는 10,503호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다. 2011년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3.7%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이 40대(25.5%), 60대(24.3%), 30대(13.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귀농·귀촌 가구의 급증세에 비추어 귀농·귀촌여성 인구 역시 크게 증가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귀농·귀촌실태의 성별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가구 규모 외에 여성의 귀농·귀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정책도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농·귀촌 연구 그리고 정책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농촌에서의 정주를 지속시키는 요인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귀농·귀촌 가구 조사는 보통 세대주인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귀농·귀촌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남성 중심의 조사에서 아내는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을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귀농·귀촌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조록환(1998: 43)은 귀농결심자 비율은 남편이 59.7%인 반면, 귀농 반대자는 부인이 68.5%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하였다. 박공주 외(2007: 14)도 조사 대상자 중 87%가 남성이었는데, 농촌 이주를 결심한 사람은 본인, 즉 남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주를 반대하는 사람

1) 행정조직을 이용해 수집된 자료로 가구단위 실태만 알 수 있고 성별 실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으로 여성 배우자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 배우자는 이주 및 농촌 정착의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위치로 이해되어져 왔다. 귀농·귀촌 가구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남성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아내의 몫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를 가족 경제의 조력자 내지 주력자로, 그리고 농촌 정착 과정의 주체적 행위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성을 전제로 접근한 기존 귀농·귀촌연구가 귀농·귀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귀농·귀촌현상을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귀농·귀촌 담론과 정책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각과 삶을 드러내어 농촌정착 과정에서 귀농·귀촌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담아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귀농·귀촌 동기, 정체성, 자녀교육, 경제활동, 마을주민과의 관계 형성, 농촌생활 만족도와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여성 및 농촌주민사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사례조사 지역은 진안군이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동부에 위치한 산간 고원 지대로 임야는 79.3%인 데 반해 농경지는 13.2%에 불과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군의 전체 인구는 20,446명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약 7천명이어서 고령화율이 36.2%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다²⁾. 진안군도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과소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안에 귀농귀촌 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2)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나이	귀농 전 거주지역	귀농 귀촌 시기	학력	가족구성 (세대원수)	귀농 전 직업	현재의 일
이세진	29	전주	2010	대중퇴	2대가구 (4명)	미술학원 강사	프리랜서(미술, 디자인관련 외주)
조수경	39	서울	2009	대졸	2대가구 (3명)	대안학교 교사	이주여성 한국어 수업, 방과후 수업
최선영	40	서울	2009	전문대 졸	2대가구 (3명)	전업주부	이주여성 한국어 수업, 가족상담
김주현	41	평택	2010	대졸	2대가구 (6명)	농업, 사회단체간사	뿌리협회 간사
김은정	41	부천	2008	고졸	2대가구 (6명)	전업주부	유정란 사업(잠시 중단)
노애리	42	동해	2009	고졸	2대가구 (4명)	미용사	면사무소 임시계약직, 사과농사
김미연	42	분당	2011	대졸	2대가구 (4명)	출판사(일본어 출판 및 일본 유학 업무)	산촌매니저
구수영	42	부천	2009	대졸	2대가구 (4명)	영어 강사 및 번역 활동	영어 교사
이선진	42	대구	2010	대졸	단독가구 (1명)	신문사 편집	농업회사 법인 총무부장
이희정	50	서울	2008	서울	3대가구 (4명)	애견미용회사, 보청기 회사	전업주부
양금선	50	경기	2008	중졸	부부가구 (2명)	상업	건물임대업, 조정수재배
이혜숙	52	서울	2005	대졸	단독가구 (1명)	전업주부	오미자 농사(규모 적음)
박재순	54	서울	2005	대졸	부부가구 (2명)	목사	농사
김덕순	56	서울	2011	대졸	부부가구 (2명)	학원 행정	도서관
이은순	62	서울	2008 U턴	대중퇴	부부가구 (2명)	홈쇼핑회사 고충처리업무	펜션, 숲해설사

주: 면담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

이 연구는 진안의 귀농귀촌 가구 580세대 가운데 15명의 귀농·귀촌 여성을 선정, 이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³⁾. 면담대상자 중 20대와 30대는

3) 면담은 2012년 6월~8월에 진행되었고, 1인당 1~2회 면담을 하였음.

각각 1명, 40대는 7명, 50대는 5명, 60대는 1명이다. 이들은 진안군의 11개 읍면 가운데 6개 읍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모두 진안으로 이주한지 최소 1년 이상인 자이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 시도에서 이주하였고, 이 가운데 남편 고향으로 이주한 U턴 귀농귀촌은 1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자가 많았고, 가족 구성은 어린 자녀를 둔 2대 가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이라는 인류학적 현지 조사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귀농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⁴⁾ 통계 분석에 기반한 양적 연구는 귀농의 실태를 분석하기에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귀농 후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 분석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있게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크다. 귀농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학적 심층면접 방법은 본 연구에서 몇 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농촌에서의 적응 과정의 역동성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농촌으로의 이주는 거주지, 직업, 인적 관계 등을 ‘통째’로 바꾸는 삶이기 때문에 귀농을 결심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의 정착도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귀농·귀촌인의 농촌에서의 적응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정서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적응 양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 적응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층면접은 귀농·귀촌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귀농·귀촌 여성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농촌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농촌에서의 삶과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4) 물론 귀농자 개개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한 연구가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한모(2002)는 도시민 이주자 7명을 대상으로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살펴보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의 『귀농·귀촌 이야기』 또한 귀농자와의 심층 면담을 기초로 하고 있다. 2008년 진양명숙의 연구 2편도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II. 선행연구

한국 사회에 귀농이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IMF 직후부터다. 대량실업과 고용의 위기 속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귀농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도 이 시점과 일치한다. 오수호(2011)는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동향을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한 바 있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난 때문에 도시민의 농촌지향 가구가 급증한 1997~1999년 사이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후, 2000~2005년 연구가 다소 정체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웰빙 바람 및 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강화 등으로 연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수호, 2011: 80). 관련 연구들은 주로 귀농·귀촌동기, 문제점과 성공요인, 귀농·귀촌자의 정착을 위한 요구와 지원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귀농·귀촌 배경과 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과 대안적 삶의 가치 추구를 중요한 동기로 보고 있다. 임혜영(1999)은 귀농동기에 의거하여 이들을 긍정적인 집단, 중간유형, 부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한 후 긍정적인 집단이 농촌에 대한 적응 정도가 유의미하다고 분석하였다. 서만용·구자인(2005: 166)은 귀농선택 과정에서는 ‘삶의 질’ 가치 추구가 주요한 변인임에도, 귀농 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이유’와 ‘삶의 질’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구성된 경제적 선택모델로는 현재와 같은 귀농 인구 유형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강대구(2007)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긍정적 기능을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귀농을 선택한 경우와 도시의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농촌생활선호집단’, ‘이상추구집단’, ‘사업실패집단’, ‘도시생활문제집단’, ‘퇴직집단’, ‘영농승계집단’, ‘건강문제집단’, ‘기타 집단’으로 세분화했다. 진양명숙(2008a: 112-128)은 진안으로 이주한 도시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이주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농촌이라는 공간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가치지향적 삶을 향한 희구는 강력한 귀농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농촌의 긍정적 이미지 중 하나인 ‘생태적 가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지만, 지나친 생태주의 의식은 관행 농법에 익숙한 토착 주민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한모(2002: 37-47)는 과거 직업 세계와 생활 경험에서 느꼈던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농촌 이주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장동현(2009)은 기존 연구들이 귀농 실태와 동기 분석에 주를 이루었다고 비판하면서, 지자체의 귀농 관련 조례나 규칙이 귀농 동기 및 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귀농·귀촌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성공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농촌생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전 준비 및 교육이 중요하고, 이주 후 원만한 인간관계,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박공주외(2006)는 은퇴한 도시 중장년층의 귀농 이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귀농 전의 구체적인 사전 준비, 이주 후 건강과 경제 수준, 이웃 주민과의 관계, 영농 교육, 농촌 생활 인식 등이 농촌 정착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박공주(2007) 외는 귀농자가 U턴형, J턴형, I턴형에 따라 농촌이주 준비과정과 적응과정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박은경(2008)도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주거상태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의료 및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고성준(2008)은 귀농자들이 귀농의 성공요인을 정부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자신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관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면서, 특히 인간관계가 성공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귀농 지역의 사전 조사 및 계획, 사전 농촌 생활 체험도는 농촌 정착을 위한 선행 요인이라고 하였다. 진양명숙(2008b)은 귀농 연구가 귀농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토착 주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찰한 바 있다. 귀농은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는 반면, 귀농인에 대한 토착 주민의 구별짓기와 타자화는 지역 사회 통합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춘희(2012)는 진안군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귀농한 60대 미만의 비은퇴자 귀농인 개인과 부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비은퇴자 귀농인과 그 가족들이

지각하는 가족 강점은 무엇이고, 가족강점이 농촌 정착의 성공적 요인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귀농자들이 귀농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귀농가족은 귀농 이후 부부 관계, 부모-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가족의 강점을 발견하고 재인식하게 되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농촌 생활 방식에 순응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는 실태와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진양명숙, 2008a: 105). 이상용(1999)은 귀농 단계를 귀농실천 단계-가족동의 단계-작목선택 단계-정착지 물색 단계-영농기술 습득 단계-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영농계획 수립 단계로 정리하였고, 이재철·이도선(2006)은 여기에 귀농 실행 단계를 추가했다. 김형용은 IMF 이후 급증한 귀농자들이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김형용, 1998a). 서규선·변재면(2000)은 우리나라 신규취농자의 대다수가 영농교육을 받지 않은 U턴 귀농자라는 사실을 염두하며, U턴 귀농자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윤순덕·박공주(2006)는 예비 도시 은퇴자들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사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강대구(2010: 753-763)는 귀농자들의 특성과 배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구분하여 지원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귀촌자들이 증가하면서 귀농자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성 가구주를 중심으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 여성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 여성의 귀농·귀촌 동기와 배경, 농촌생활의 어려움, 정착을 위한 지원요구는 남성과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해야 귀농·귀촌여성은 물론 귀농·귀촌 가구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적응 양상과 어려움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면담결과 분석

1. 귀농·귀촌 동기

귀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귀농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조사 대상자 15명의 귀농·귀촌 동기 및 배경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해 보았다. 하나는 남편을 계기로 진안으로 이주한 유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녀 및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에게서 이주의 동기를 찾으려는 유형이다. 15명 가운데 결혼 상태에 있는 가구는 13가구다. 이 가운데 남편을 따라 이주한 이는 모두 5명이다. 즉 이 5명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안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편이 계기가 되어 진안으로 온 경우이다.

“남편은 늘 시골, 특히 산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남편의 꿈은 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싫지 않았고, 시골에서 산다는 현실감이 별로 없어서 섣뚱 따라 나선 것 같다(이세진),”

“남편이 진안의 ○○ 사업을 맡아 진안으로 오게 되었고,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다 보니 부부사이가 소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이 지속적으로 진안에 와서 살 것을 설득하여 오게 되었다(이희정).”

다른 여성들은 귀농·귀촌의 동기를 본인과 자녀, 생활방식에서도 찾으려 했다. 자녀의 교육환경,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 생태와 자연에 대한 관심, 시골생활에 대한 동경, 가족의 행복, 좀 더 나은 삶 등 생활 방식과 가치의 전환을 농촌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연에서 살고, 자연으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된장, 고추장도 직접 담가 먹어 보고 싶었고요(김덕순).”

“시골에서 나고 자라 시골에 대한 향수가 컸어요.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시골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최선영).”

“우리 부부를 위해서는 농촌이 나을 테고, 아이를 위해서는 도시가 나을 테지만, 아이들도 농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 결정하게 되었어요(노애리).”

2. 정체성

농촌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한 조사대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귀농·귀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의 엄마이거나 주부이거나, 도시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농촌이 아닌 산이나 전원에 사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귀농·귀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한 사람으로 위치 지었다. 현재 농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농촌 사람’이나, ‘귀농인’ 내지 ‘귀촌인’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망설였다. 도시적 사고나 생활 패턴, 도시와 같은 출퇴근 개념의 직장 생활, 주부나 누구의 엄마로서의 생활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농촌 사람’으로 자신을 일치시키지(identify)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주는 귀농·귀촌 개념이 아닌 단순한 농촌으로의 물리적 이동을 뜻하는 ‘이사’의 개념에 가까울 뿐이라는 것이다.

“농사지으러 간다, 농촌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진안에 온 게 아니라 자연이 좋아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었고, 우연이 그게 진안이 되었을 뿐이에요. 귀농이다, 귀촌이다, 무언가 개념적으로 묶는 게 어색하고 이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전제하는 귀농·귀촌 개념은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자연, 그것도 산에 살면 좋겠다 정도?(이세진)”

“귀농·귀촌은 어쨌든 제2의 고향 찾기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이곳으로 왔을 때는 이곳에서 내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기본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주변 환경이 변하면 [또] 이사를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오시는 거죠. 저는 상담하면서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이곳으로 오면서, 여기서 잘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요’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귀농·귀촌이란 단어를 감히 못 쓸 것 같아요. [귀농·귀촌을] 지향하고 싶지만 아직 제게는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김주현).”

“[귀농·귀촌에 대한] 특별한 전제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디로 이사갈까? 그래. 시골로 가자’라고 정했기에 귀농·귀촌 자체의 개념이 없었다고 봅니다. 익숙치 않았던 거죠. 내려와 보니 귀농·귀촌이란 이름으로 불린 것, 그러나 귀농·귀촌이란 서류상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이라 생각돼요. 마을사람들도 귀농·귀촌이란 명칭을 많이 들어 쓰긴 해도 특별히 어르신들은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지인이란 명칭을 쓰긴 하지만요. 단순 그 이유입니다. [귀농·귀촌이] 익숙하지 않다는(김미연).”

그러나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된 이혜숙, 박재순은 자신을 농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혜숙은 “육체노동의 소중함을 배웠고, 농사 교육 등 진안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환원하고 싶다”고 하였고, 박재순은 “농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힘든 것임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고, 흙과 더불어 살아온 마을 어르신들이 더욱 소중하고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자신을 농부라고 하였다.

3. 농촌에서 자녀 양육하기

귀농·귀촌여성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때 ‘자녀’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귀농·귀촌 당시 성년으로 자란 자녀를 둔 가구는 4가구, 취학 전이든 취학 자녀든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8명이었다. 6가구는 이주 동기의 한 요인으로 자녀교육을 언급했다. 최선영과 구수영이 농촌을 선택한 가장 큰 동기는 발달 장애 아이 때문이다. 최선영은 “발달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 못하고, 따돌림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시골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영은 “장애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패턴이 빠른 도시에서는 살수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진안에 사는 지인의 집에 놀러온 게 계기가 되어 진안으로의 이주를 택했다.

이 외 4가구도 진안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자녀 부분을 언급했다. 조수경은 “아이들이 도시스럽게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참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했다. 김은정은 “아이들이

억지로 학원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일면서 “공부 할 애는 어디를 가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미연도 “자신이 초등학교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자녀들에게도 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농촌을 택했다고 한다. 다만 노애리는 위 사례와는 달리 자녀의 학습 부진을 걱정하며 농촌으로의 이주를 망설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녀’는 귀농귀촌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주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양육 환경에서 농촌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부모와는 남다른 양육 가치관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세진은 백신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예방접종을 안하기로 결정했고,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교육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아이 하나를 입양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권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 둔 후 7년 동안 대안학교 교사 활동을 했던 조수경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공동 육아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자녀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홈스쿨링과 대륙횡단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⁵⁾ 김주현도 자녀가 원하지 않아 포기했지만, 공동육아를 하는 곳에 보내려고 시도를 한 바 있다. 김미연은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은 최대한 작은 학교를 선택하고자 했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3~5년간 외국에서 함께 생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구수영도 공동육아를 하는 곳에서 자녀를 키웠으며 제도권 교육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농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농촌에서의 학교생활을 좋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연과 가까이 키우고 싶었고, 학원이나 학교 같은 기관 자체에 집착 같은 게 없었거든요. 특별히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게 제가 추구하던 교육이었거든요.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이가 관심을 갖게 될 다른 것들 중 시골에 없는 것들은 도시로 오고가며 배우게 할 생각도 있구요(이세진).”

5) 뿌리협회 소식지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9호(2011년 10월호)에는 한 귀농자가 자신이 왜 홈스쿨러가 되었는지를 기고한 바 있다. 이렇듯 홈스쿨링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귀농·귀촌자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우리 작은 애는 소심하고, 30몇 명 중 있는 등, 마는 등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자신감도 생기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요. 게다가 이번에 6학년 되면서 전교회장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다시 도시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지, 내려와서 살기는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애들 보면 입시지옥이라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나도 도시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키웠을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키워도 되니까요. …요즘 뉴스 같은 것 보면 저런 데서 안 키우는 게 다행이라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김은정).”

물론 교육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조수경과 김주현은 작은 학교이면서도 도시 학교를 그대로 따라 하는 농촌 학교 교육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구수영은 장애인 교육 시설이 취약한 농촌의 환경을 아쉬워했고, 노애리는 이주 전에 걱정했던 자녀의 학습 부진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었다.

4. 농촌에서 여성 일자리 찾기

농촌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번 조사대상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은 비단 생계 경제의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은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넓힐 수 있으므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김주현은 귀농·귀촌 여성들 가운데에는 “사무직 중심의, 출퇴근이 일정한,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끔 농공단지 사무직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에는 도시의 젊고 유능한 전문직 여성이 응모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 여성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뿐만 아니라 토착 주민들 모두 농업 영위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농사로는 힘들다는 것이다. 진안군은 ‘귀농1번지’를 내세우며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정책의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귀농·귀촌 하려는 도시민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있다. 농업 보다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교육, 문화, 복지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구자인, 2012: 32).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다양한 역량을 모으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한 사례가 바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활동이다.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마을만들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진안군은 내발적 발전에 바탕한 주민주도의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성과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진안에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십 수개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 단체가 모두 경제적 일자리 성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여러 단체가 수익 사업을 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의 사업과 연계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⁶⁾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많다. 즉 귀농·귀촌인이 지닌 능력을 한데 모아, 농업 외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것이 귀농·귀촌인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농촌정주수요조사』에서도 ‘농촌에 이주한다면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농림어업에 종사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4.6%에 불과했다.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는 16.5%, 여자는 12.6%로 여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경우는 더 적었다(송미령 외, 2007: 218-219). 즉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가는 도시 이주민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구자인(2012: 33)은 “농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실 전업 농사꾼이 아니라, 농업 자체는 잘 몰라도 농산물의 가공과 직거래유통, 새로운 특산물 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교육, 복지, 문화 분야를 포함해 기존 농촌 주민들이 잘하지

6)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입주예정단체는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진안마을(주), 마을축제조직위, 마을간사협의회, 뿌리협회, 진안고원길, 한일교류협회, 진안자활센터, (사)농촌으로가는길, 진안군평생학습센터와 농촌형 창업회사로 적정기술연구회, 로컬컴퓨터, 작업장학교, (유)마이크린, 자전거동호회 등의 15개 단체로 이 가운데 3곳은 사회적 기업이다.

못하는 분야이지만, 농촌이 사람 사는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을 귀농·귀촌인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자인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노인복지나 다문화가정, 생태건축과 공공미술 같은 예술 영역 등 새로운 시장영역이자, 사회적 기업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농촌에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농촌에 응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귀농·귀촌 여성들의 일자리를 농업 생산 쪽이 아닌 가공 쪽으로 접근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토착 주민과 농사 규모나 기술면에서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귀농·귀촌인들에게 맞는 사업이라 한다면 가공사업 관련한 것일 테고. 실제 예산은 적지만 소규모 창업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귀농하신 분들은 보통 산야초나 효소를 많이 하더군요(노기순).”

실제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에서도 산야초, 장류, 효소, 오미자 등에 관심을 보인 사례가 많았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뿐만 아니라 노인, 교육, 복지, 문화 등 농업 이외의 영역은 여성적 감수성이 필요한 일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재순도 지적하였듯이, “작은 마을에도 시장, 학교 등 모든 시스템이 필요하며, 여성성이 더 필요한 곳이 바로 시골”이라고 했다. 사실 농촌 삶의 질의 문제는 교육 및 노인 복지 영역에서의 소외, 문화 향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공간이기도 했던 장터 기능의 축소 등 농업 이외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농업 이외의 영역에 여성적 역량과 감수성이 발휘될 여지는 크다. 이는 이미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이세진은 “재능만 있으면 일 들어오는 것 같다”고 했고, 조수경은 “구인광고를 보면 생산직이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일자리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했다. 그리고 “요가나 각종 민간 자격증을 준비해 오면 농촌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희정도 “농촌에서는 소소한 작은 일거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최선영도 생각보다 농촌에서 할 일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고, 이선진은 “출퇴근 형태의 직장 개념의 일자리는 마땅히 없더라도 방과 후 교사, 다문화 가정 교사, 사회복지사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있으므로 자격증 등이 있으면 일자리를 찾는 데 유리할 것”이라 일러 주었다.

김은정은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 잘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희망했고, 김미연은 “교육이나 먹거리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구수영은 “귀농·귀촌인의 전공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이희정은 “시간제 일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박재순은 “경제적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들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귀농·귀촌인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 이외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이들 직업군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하나의 ‘사회’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귀농·귀촌인을 농업후계자나 신규영농자로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업 외의 분야에서 귀농·귀촌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5. 마을주민과 관계 형성하기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이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이동이든 여기에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적응이 따르기 마련이다. 심리적 적응이 주관적 적응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적응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적응이라 할 수 있다. 생태적 적응은 주거 등 생활 거점 확보를, 경제적 적응은 저축이나 수입 등 소득의 확보를,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뜻한다(김경동·이온죽, 1980).

앞서 언급한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경제적 적응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적응은 마을 안팎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나 특정한 단체 및 모임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유무형의 사적 자산 내지 이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은 지역에

대한 애착 형성과 농촌 정착에의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귀농·귀촌인들의 사회관계 활성화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장구되어야 할까.

무엇보다 농촌 주민과 융화하려는 개인의 노력과 귀농·귀촌인을 포용하려는 토착 주민들의 노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마을 적응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간섭, 심지어는 무성한 뒷담화나 소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갈등의 요소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농촌의 문화나 정서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협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려고 해야 한다”거나(최선영), “주민들의 관심, 간섭, 소문을 애정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겁내하지 말아야 한다”거나(구수영), “어느 정도의 거리감은 유지해야 한다”(이희정)거나, “주민들에게 내가 다가가야 한다”(박재순)거나 하는 식으로 저마다 들려주는 구체적인 노력의 형태는 달랐으나 대부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는 토착 주민 여성의 목소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토착 주민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잦은 교류와 소통이었다. “집들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야 한다”거나, “마을회관에 같이 모여 서로 밥도 해먹어야 한다”거나, “인사 잘 하고 마을 행사에 잘 참여해야 한다”거나, “외진 곳을 찾지 말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거나, “로마법을 따르듯 마을 어른들에게 잘 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모두 ‘소통’과 ‘교류’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면 주민들의 시선이나 관심은 ‘소소한 것’에 있었다. 한편으로 이는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들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개인적 취향’에 대한 주민들의 과도한 관심일 수 있다. 귀농·귀촌 여성의 마을 적응을 며느리의 시집 적응으로 비유한 사례처럼 귀농·귀촌 여성들이 언급했던 부분은 마을 정책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나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의 주민들의 시선과 소문이었다. 귀농·귀촌인과 토착 주민의 통합을 위해서는 양측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을로의 진입 장벽은 집이나 땅과 같은 물리적

장벽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홀대와 같은 정서적 장벽이 물리적 장벽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장벽이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마을 적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귀농·귀촌 여성의 마을 적응을 위한 노력과 함께 토착 주민여성들의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귀농·귀촌을 여성의 경험과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귀농·귀촌은 ‘가구’ 단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각자 주체적인 위치로 놓고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처하는 상황과 어려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면담 결과, 여성들은 남편의 의사, 자녀교육, 가족의 삶의 질 등 가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편이어서, 귀농·귀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녀는 귀농·귀촌 여성들에게 중요한 이주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체로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고, 이주 후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는 경쟁을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로부터의 전환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와 가족을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교육환경과 가족 거주 요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농촌으로 이주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농촌에도 도시에도 두지 못하고 “농촌에 이주한 도시여성”으로 중간 영역에 두면서 정서적으로 정착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귀농·귀촌한지 오래된 여성들은 자신을 농부로 인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귀농·귀촌 여성들은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귀농·귀촌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여성들은 농업 보다 교육, 문화, 행정사무 관련 일 자리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도 귀농·귀촌인들이 도시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농민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 전에 하던 일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고, 산촌매니저나 숲해설사처럼 농촌에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취업하기도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효소나 식품가공업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이 가진 재능을 계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귀농·귀촌 여성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귀농·귀촌 여성들의 농촌 정착에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을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맺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 세대간 차이도 있어 토착 주민여성과 귀농·귀촌 여성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서로 잘 지내겠다는 의사는 있으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 차가 크다. 이웃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도시문화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주민여성들이 희망하는 잦은 교류는 갈등의 소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서 교류 지점을 찾는 상호간의 노력과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여성들의 농촌 이주 배경과 정착 경험에 대한 이해는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귀농·귀촌 정책은 여성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고 남성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귀농·귀촌은 여성과 가족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 pp. 59~98.
- 강대구(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pp. 743~771.
- 고성준(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석사학위논문.
- 구자인(2012). 귀농귀촌인과 더불어 사는 농촌사회, 진안군마을축제 <마을꽃이 피다> 학습교류회 자료집, pp. 28~37.
- 김경동·이온죽(1980). 도시에서의 적응과 농촌으로의 귀환이동, 진단학보, 49, pp. 159~179.
-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pp. 533~556.
-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pp. 205~223.
- 박공주 외(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pp. 63~76.
- 박공주 외(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농촌 적응 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pp. 9~21.
- 박성정·이선주·진명숙·장희영(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은경(2008). 귀농인 이주 만족도 조사연구: 영월지역 은퇴 후 귀농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서규선·변재면(2000). U턴 귀농자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pp. 137~153.
- 서만용·구자인(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pp. 145~171.
- 송미령 외(2007). 2007 농촌 정주 수요 조사 결과.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수호(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

- 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pp. 77~90.
- 유정규(1998). 귀농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 34, pp. 23-41.
- 윤순덕·박공주(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 계획, 12(2), pp. 37~47.
- 이상용(1999). 귀농인 의식실태 및 안정적 정착 방안, 연구와 지도, 40(6), pp. 35~41.
- 이재철·이도선(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임춘희(2012). 비은퇴자 귀농가족의 가족 강점과 귀농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pp. 201~232.
-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사회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 석사학위논문.
-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나타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조록환(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도시와 빈곤, 34, pp. 42~47.
- 진안군(200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 구축 연구.
- 진양명숙(2008a).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4), pp. 105~130.
- 진양명숙(2008b). 도시민 농촌 유입의 사회문화적 영향: 전북 진안군 마을 리더의 인식을 중심으로, 2008 진안군 지역연구논문 공모자료집, pp. 69~95.

Abstract

Analysis of Experiences of Women upon Turning to Farming or Farm Villages: Case of Jinan

Jin Myong-Suk* · Park Sung-Jung**

As a growing number of people turn to farming or farm villages, the phenomenon draws extensive social and policy-based attention. However, as only little attention is drawn to women who have turned to farming or farm villages, their actual status, the difficulties they face and policy-related demands have not been identified.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easons why such women have turned to farming or farm villages, as well as their identity, education of their children, economic activities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fellow villag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who have done so in Jinan. The objectives of this analysis are to draw a picture of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experience in farm villages, and thus to identify their satisfaction levels for living there and their difficulties, as well as the activities and roles required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se villages.

Answers indicate that these women turned to farming or farm village because of a desire to provide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skepticism about their jobs and urban lives; interest in ecology and nature; yearning for a rural life; happiness for the family; and a desire for a better life. They strove to find new lifestyles and new value systems in farm villages. They saw themselves not as people who “turned to farming or farm village” but as those who “moved” from a city to a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arm village. Most of them are positive about raising their children in farm villages. They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engage in activities other than farming. Most of the interviewees said that they felt uncomfortable or there was possibility of being at odds with local villagers when such villagers excessively paid attention to or interfered with their efforts to settle in the village. However, they conceded that they should approach such issues from the viewpoints of the culture or sentiment in the farm villag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issue of turning to farming or farm village by focusing on the “individual” - whether it is a husband or a wife - rather than each “household.” This is because men and women - even if they have turned to farming or farm village together as a family - face different situations and difficulties. In order for the women who have turned to farming or farm village to successfully settle down in farm villages and to contribute to the rural community, more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o show their ability and talents in the rural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the rural community should change so that women can make their voices heard.

Key word: people(women) turn to farming or farm villages, rural women

